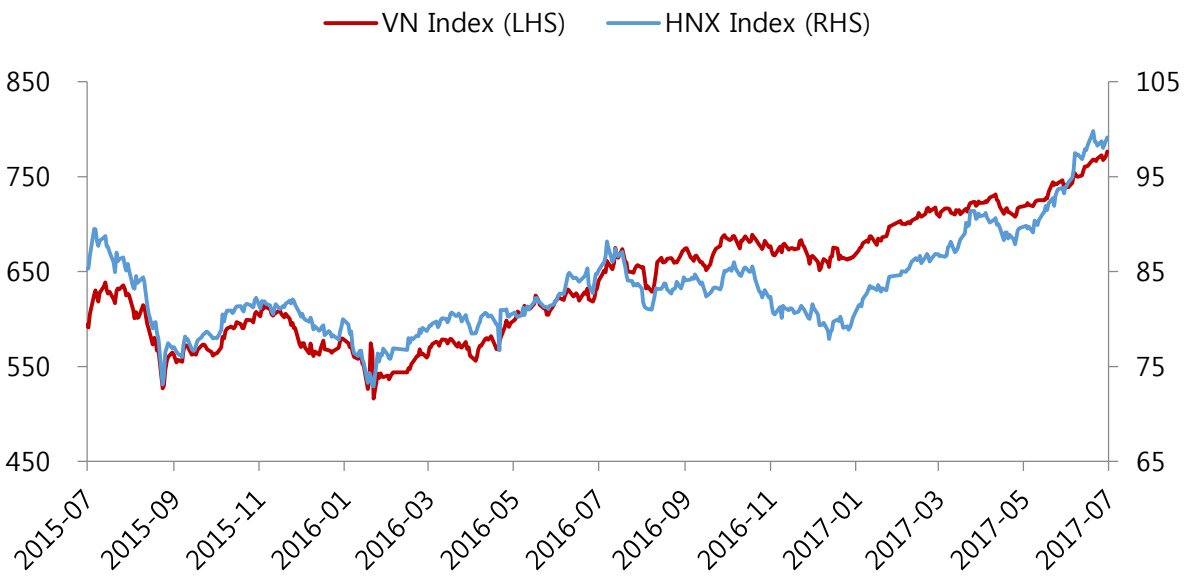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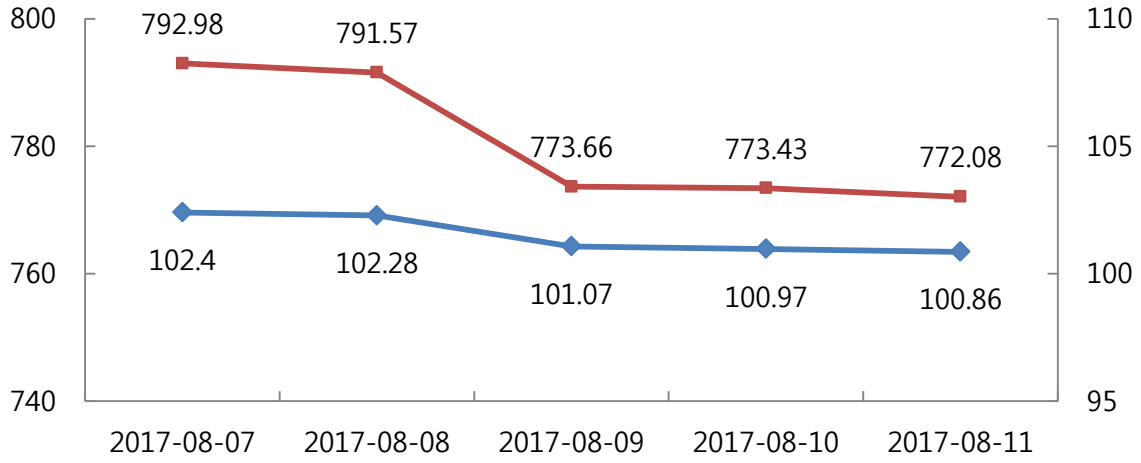
1. 주식시장 뉴스

■ 연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중 주식시장 개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승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들이 약세를 보였다. 베트남 증시 또한 이에 영향을 받아 9 일 호치민 VN 지수는 전일 대비 2.26% 하락하였으며 하노이 HNX 지수는 전일 대비 1.18% 하락했다. 8 일 발언 이후에도 연일 북한과 미국이 위협의 수위를 높이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주요 지표의 하락은 계속됐다. 이에 따라 금요일 HNX 지수 및 VN 지수는 월요일 대비 각각 2.63% 및 1.50% 하락한 772.08pt, 100.86pt 로 장을 마감했다.

■ 개별 기업 뉴스

○ 아세안 에너지 회사, 10억 달러 태양열 발전소 계획

아세안 에너지 합작회사(The ASEAN Energy Joint Stock Co)는 Hau Giang성의 메콩 델타 지역에 US$10억 상당의 200ha 규모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베트남뉴스에 이전시는 보도했다. 아세안 에너지 회사의 임원 Ta Xuan Thang은 3일에 열린 실무 회의에서 회사가 현재 Hoa An, Vinh Tuong, Vinh Vien 지역 중 하나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물색중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회사는 성 당국의 승인을 받는 즉시 시공에 착수하여 2019년까지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Hau Giang 인민 위원회의 부의장 Truong Canh Tuyen은 태양열 발전소 건설의 지원을 약속하며 토지 임대, 소득세 및 직업훈련과 같은 부문에서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이라 하였다.

○ H&M, 9월9일 베트남 상륙

Hennes&Mauritz AB (H&M)은 내달 9일 호치민시 빈컴센터쇼핑몰에 베트남 1호 매장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H&M의 동남아국가 담당자인 Fredrik Famm은 “소매 시장의 잠재력이 큰 지금이 베트남 시장에 뛰어들기 가장 적절한 시기”라며, 이번 진출을 통해 “H&M만의 다양한 패션상품으로 고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고객들만의 다양한 스타일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다. 2017년 한 해 동안 H&M은 높은 수익성으로 매출 성장률이 10-15%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베트남 진출과 더불어 카자흐스탄,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조지아 주로 브랜드를 확장하고 430개의 신규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2017년 상반기 H&M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늘어난 140억USD선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세후 이익은 1주당 0.6USD와 동일한 금액인 10억USD로 집계됐다.

2. 주요 경제 동향

■ 섬유 및 원사 수출 지난 7개월간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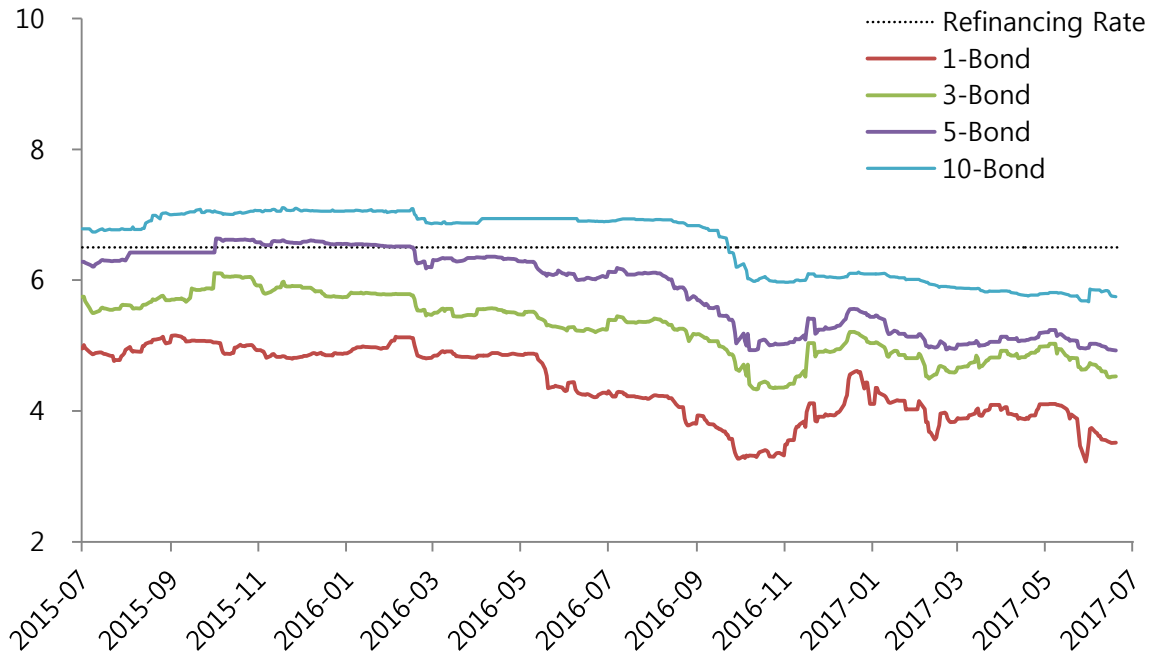
지난 7 개월간 베트남의 섬유 및 원사 수출은 750,000 톤에 도달하며 이는 18.5 억 USD 이상의 금액으로, 지난 동기간 대비 수출량은 17% 증가하고 그 가치는 26.5% 증가하였다. 중앙세관(General Department of Custom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341,000 톤이 넘는 섬유 및 원사가 9 억 334 만 USD 에 해외로 운송되었으며, 수출량과 그 가치는 각각 18.5% 및 29.47% 증가하였다. 베트남 섬유와 원사는 전세계 약 20 개 국으로 수출된다. 중국 본토는 가장 큰 주요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액의 54.4 %를 차지하며, 대한민국과 터키에 대한 수출 규모가 그 뒤를 잇는다. 대만, 홍콩 및 파키스탄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 역시 수출 흑자를 보여주는 시장이다.

■ 소매업 및 서비스업 매출액 10% 증가

1월부터 7월까지 베트남의 소매업 및 서비스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2240조 VND (986억USD)에 달했다. 베트남 통계청 (GSO)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매출액은 가격 요인을 제외하였을 때, 전년 대비 8.7% 증가하였으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0.3% 늘어났다. 이 중 소매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1680조VND (740억USD)로, 해당 분야 매출액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며 최고액을 기록했다. GSO의 내국무역 전문가인 Vu Manh Ha는 7개월간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가에 대해, “7월 치뤄진 고등학교 졸업 시험으로 인해 숙박업 및 케이터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7개월간 숙박업 및 케이터링 서비스로 인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278조 6000억VND를 기록했다. 더불어, 관광 및 여행 산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19조8000억VND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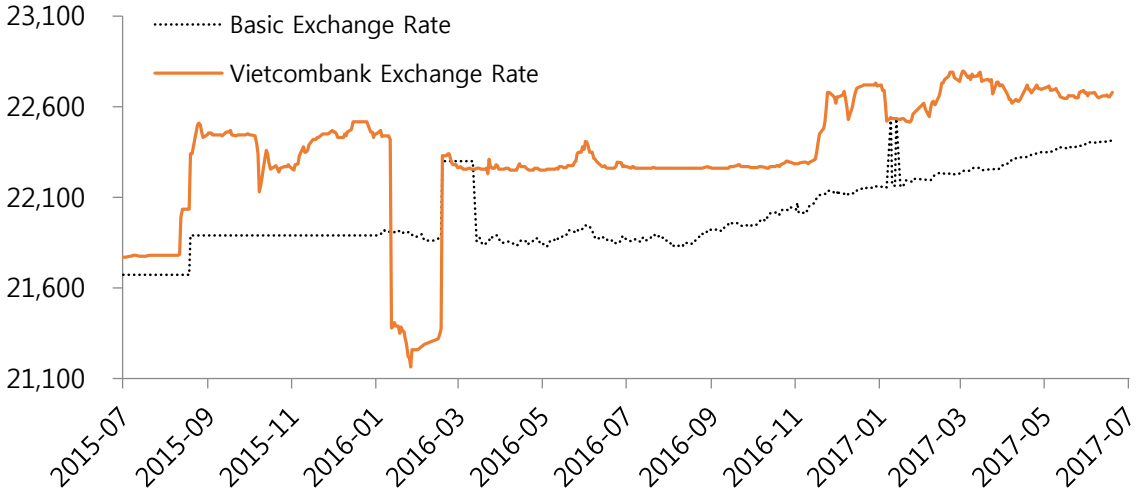
3. 금융 시장 동향

■ 기준 금리 및 국채 금리(SBV, Vietnam Government Bond Rate, %)



■ 환율(Vietcom Bank Exchange Rate, USD Sell Rate, VND/USD)

2017-08-11	Buying	Transfer	Selling
VCB Exchange Rate	22,695	22,695	22,765



■ 은행 수익에서 서비스 요금 비중 높아질 것

최근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발표한 2016-2020 년 신용 기관 구조조정 프로젝트에 따르면, 2020 년을 기하여 전체 은행 수익 중 서비스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2 배인 약 20 퍼센트가 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은행이 과도한 대출을 진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베트남은 신용 성장이 30 퍼센트에 달했던 2006 년부터 2011 년 기간에 부정적인 결과를 겪었고, 이로 인해 은행들은 상당한 규모의 악성부채에 시달렸다. 올해 상반기에는 상업은행들이 좋은 성과 지표를 보여주었으며 대부분이 이미 연간 수익 목표의 절반 이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 수익의 대부분은 대출 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다. SBV 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의 신용 성장률은 9.06 퍼센트로, 지난 5 년 동기간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전문가들은 높은 신용 성장률이 향후 은행에게 2006 년-2011 년 기간에 경험했던 것과 같은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염려한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 호치민시 건설부 장관 "공공 주택, 삶의 질 보장해야..."

호치민시 건설부 장관인 Tran Trong Tuan 은 입주민들의 합리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2 억-3 억 VND 가 아닌 10 억 VND (44,000USD) 가격대의 공공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4 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은 수년간 호치민시의 주요 안건이었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빈곤 계층과 노동자 계층을 위해 수만채의 아파트를 건설하였으며, 2020 년까지 2 만채 이상을 추가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2 억-3 억 VND 가격대의 가구 건설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 Tuan 은 "아파트는 단순히 살기 위한 주거 공간이 아닌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반영해야 하고,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대안으로 3 억 5000 만-10 억 VND 가격대의 아파트 건설을 주장했다.

5. 한국 기업 동향

■ 오뚜기, 베트남법인 실적회복에 동남아시장 진출 '가속화'

오뚜기(대표 이강훈)의 베트남법인이 올들어 매출 실적이 회복됨에 따라 동남아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10 일 오뚜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오뚜기 베트남법인의 올해 1 분기 매출액은 92 억 9300 만 원으로 전년 76 억 400 만 원 대비 22.2%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4 억 6700 만 원으로 전년 3 억 300 만 원 대비 무려 54.1%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지난해도 11 억 7900 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8% 늘어난 반면 매출액은 285 억 2300 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며 주춤했지만 올 들어 큰 폭으로 개선됐다. 특히 동남아 중에서 베트남시장은 높은 구매력으로 향후 수익성이 보장됨에 따라 진출하는 업체가 점점 늘어나는데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추세다. 오뚜기는 베트남법인의 매출 회복에 탄력을 받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동남아시장에 전반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More Information: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31419)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restpine@gmail.com / rest@jplaws.com +84-96-280-6012

정성엽 syjeonghcmc@gmail.com / syjeong@jplaws.com +84-12-2889-7626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 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